



제주환상자전거길

천혜의 아름다운 섬 제주, 자전거로 달린다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자연과학분야 3관왕(생물권보호구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을 달성한 지역으로 교통량이 적은 해안도로와 일주도로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전거길이 조성되었다.

자전거길은 김녕성세기해변, 함덕서우봉해변, 표선해변 등 아름다운 해변과 쇠소깍, 성산일출봉, 송악산 등 제주도가 자랑하는 관광명소 등을 경유한다. 특히 남원~김녕해변으로 연결되는 약 60km의 해안도로 구간은 바다와 인접하여 자전거 주행이 가능해 색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으며, 영알해안, 한담해안도로, 신창풍차해안도로, 월령선인장단지, 법환바당 등 숨겨진 제주도의 명소 등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코스정보 용두암 ▶ 이호테우해변 ▶ 애월해안도로 ▶ 한림공원 ▶ 신창풍차해안도로 ▶ 수월봉 ▶ 모슬포 ▶ 송악산 ▶ 중문관광단지 ▶ 법환 ▶ 정방폭포 ▶ 쇠소깍 ▶ 남원 ▶ 표선해변 ▶ 성산 ▶ 김녕성세기해변 ▶ 함덕서우봉해변 ▶ 용두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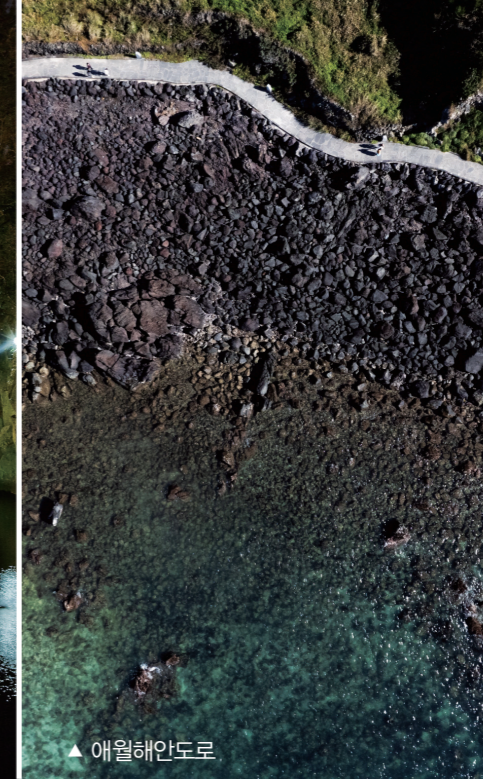
전체거리 234km

소요시간 15시간 30분

난이도 🚲🚲🚲🚲🚲



▲ 용연



▲ 애월해안도로



▲ 쇠소깍

용연

‘영주십경’의 하나인 ‘영연야범’의 장소이다. ‘용연’의 계곡물은 산등성이부터 바닷가로 흐르며,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다. 나무로 연결되어 있는 용연다리는 정자와 어우러져 있는 계곡의 절경을 구경할 수 있다.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데, 용연에 사는 용이 승천하여 이곳 만큼은 비를 내리게 했다는 전설이 있다.

애월해안도로

제주특별자치도 북서부 끝의 해안을 따라 형성된 도로로 하귀리에서 애월리까지 이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여러 해안도로 중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다양한 형태로 굴곡진 해안선을 따라 지그재그로 이어지는 총 길이 9km의 도로를 자동차로 달리는 동안 해안의 절벽과 하얀파도, 드넓게 펼쳐진 맑고 푸른 바다 등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해안도로 주변에는 이국적인 분위기의 레스토랑, 카페, 호텔, 민박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쇠소깍

쇠소깍은 효돈천을 흐르는 담수와 해수가 만나 깊은 웅덩이를 만든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 쇠는 ‘쇠소깍이 위치한 효돈마을’을, 소는 ‘움푹한 물웅덩이’를, 깍은 ‘끝’을 뜻한다. 여기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각종 나무들이 우거져 계곡에 온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제주도의 전통 배인 테우를 타면 쇠소깍만의 신비한 매력을 더욱 잘 느낄 수 있다. 🚣

참고자료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www.bike.go.kr), 제주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다음 호에 계속) - 자전거 도로 정보 제9편

